

# 김 수출 열풍 타고...목포시 수산식품산업 중심도시 '성큼'

### 지난해 수출액 43% 늘어난 7850만달러...마른 김 전국 1위 국제 마른김 거래소 설립·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사업 박차

지난해 김 수출액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한 목포시가 '마른 김 특화산업'과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며 '수산식품산업 중심도시' 굳히기에 나선다.

17일 목포시에 따르면 지난해 목포 김 수출액은 7850만달러(1084억원)로, 전년보다 43% 증가했다. 이는 목포 김 수출액 역대 최고 실적으로, 전남에서 1위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마른 김 수출액은 2년 연속 전국 1위에 올랐다.

목포의 선전은 지난해 우리나라 김 수출액 1조원(7억9000만달러) 달성에 힘을 보탤 전망이다.

목포의 김 산업 특화는 재단법인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이사장 박홍물 목포시장)가 이끌고 있다.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는 해양수산부 1호 김 산업 전문기관으로 지정됐다. 지난해 열린 12회 김의 날 행사에서는 김 산업 발전을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공로패를 받았다.

지난달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인공지능(AI) 기반 마른김 품질 등급 판별 설

비 개발·실증'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앞으로 민간 기업과 3년간 45억원을 지원받아 마른김 수산식품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앞당길 예정이다.

15개 김 가공업체가 집적화된 대양산단은 김 수출의 전진기지로 만들 계획이다.

대양산단에는 2026년 개장을 목표로 739.5㎡로 국내 최대 규모 '국제 마른김 거래소'가 조성될 예정이다. 이곳은 국제회의실과 구매 담당자(바이어) 상담실 등을 갖추고 마른김 거래의 유통 효율성을 높인다.

목포의 김이 세계적으로 알려지면서 지난해 3월에는 일본 수산청과 대사관, 영사관, 일본 전국김가공협회, 전국김도매협회 등 5개 단체가 대양산단의 김 가공공장을 방문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센터는 주한 덴마크 외교부 소속인 덴마크 이노베이션센터와 김 산업 발전을 위한 교류를 지속하고 있다.

대양산단에는 마른 김 거래소 외에도 '수산식품 수출단지'가 지난달 착공하며 수산식품의 생산·가공·



지난달 착공한 목포 대양산단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감도. (목포시 제공)

유통·수출을 한자리에서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고 있다.

수산식품 수출단지는 부지 2만8133㎡에 사업비 1137억원을 투입해 연면적 4만6612㎡로 2개 동 규모로 건립된다.

임대형 가공공장 및 냉동·냉장 창고, 연구개발(R&D) 시설 등이 들어서 고부가가치 수산식품 개발, 수출 품목 다변화, 수출지원 강화 등 종합적인 기능을 지원하게 된다.

수출단지에는 수산 식품기업 36개사 신규 투자

유치로 인해 2000명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2000억원의 생산유발효과를 낼 예정이다.

임대형 가공공장은 670㎡ 20개 실, 735㎡ 12개 실, 1300㎡ 4개 실 등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해 크기를 다양화한다. 김을 포함한 해조류, 전복, 어묵, 어패류 등 전남에서 주로 생산되는 수산식품을 가공·생산하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갖춘 가공시설로 구축하게 된다.

또 수산식품 가공·유통·보관에 필수적인 시설인 냉동·냉장 창고를 구축해 입주기업의 가공 원료와 완제품 저장·보관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다.

수출단지 연구개발 지원시설에는 글로벌 소비 경향을 반영해 가공식품의 개발, 포장 개발, 해외 인증지원, 해외시장개척 지원, 기업 운영 지원 등의 기능을 도입한다.

박홍물 목포시장은 "목포 수산식품의 미래 혁신 성장을 위해 수산식품 산업을 발전시키고 육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수산식품 수출단지를 통해 목포가 수산식품산업 중심도시로 도약해, 우리나라가 '블루푸드' 선도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목포=문병선 기자·서부취재본부장 moon@

## HD현대삼호, 현장 작업자 맞춤형 '웨어러블 로봇' 도입

### 엔젤로보틱스와 개발 업무협약

HD현대삼호가 현장 작업자들을 대상으로 '웨어러블 로봇' (착용형 로봇)을 도입하며 작업환경 개선에 나선다.

HD현대삼호는 최근 엔젤로보틱스와 '조선소 맞춤형 웨어러블 장비 개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17일 밝혔다.

업무협약식에는 신현대 HD현대삼호 사장과 공경철 엔젤로보틱스 대표 등이 참석했다.

엔젤로보틱스는 협약을 따라 산업용 웨어러블 로봇인 '엔젤 기어'를 조선소 작업 환경에 맞게 보완, 개발한다. 적용 범위는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HD현대삼호는 로봇 개발에 필요한 현장 정보를 제공해 근로자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과 피로도 경감 등 작업 환경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신현대 HD현대삼호 사장은 "조선소의 특성상



신현대(오른쪽 네 번째) HD현대삼호 사장과 공경철 엔젤로보틱스 대표 등이 '조선소 맞춤형 웨어러블 장비 개발'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HD현대삼호 제공)

자동화를 적용하기 어려운 공정이 많은데, 현장에 최적화된 로봇 개발을 통해 작업자가 근골격계 질환 없이 편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영암=전병헌 기자 jbh@kwangju.co.kr

## 목포 시내버스 노선 전통시장·통학 중심 변경

### 24일부터 조정 노선 운영

목포시가 오는 24일부터 통학 불편, 전통시장 노선 부족 등 노선개편 관련 시민 의견사항을 반영해 시내버스 일부 노선을 조정한다.

이번 노선 조정은 지난 2월26일 전면 개편 이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접수된 민원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통학 및 전통시장 수요를 최우선 순위로 두고 추진됐다.

추가적인 증차 없이 기존 노선을 보완하는 형태의 보조노선 총 4개를 신설하고, 운행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2개 노선의 일부 경로를 변경했다.

구체적으로 간선 2번의 보조노선으로 2-1번을 신설해 용해 백련지구와 북항 6개 학교, 문태중고 등 주요 학교와 백련대로를 최단 시간으로 연결한다.

또 간선 3번의 보조노선으로 3-1번을 신설해 양

을로 구간(대성LH 일산·종원나이스빌)과 전통시장(동부시장·자유시장·청호시장)을 연결한다.

22-2번은 남만 22-1번 노선에 삼학부두 경로를 추가해 관광 노선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남만 33-1번의 보조노선으로 33-2번을 신설해 삼학부두와 목포역 인근을 연결함으로써 여객선 이용객의 편리한 이동을 돕는다.

이와 함께 버스 운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간선 3번의 삼학파출소-삼학도입구 구간을 한울웨딩홀-자유시장으로, 버스터미널-이마트 구간을 버스터미널-청호시장입구로 변경하며, 남만 33(33-1)번의 목포역-목포세무서 구간을 청소년문화센터로 변경하는 등 노선을 일부 조정한다.

노선 조정 관련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홈페이지 내 시내버스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목포=장봉선 기자 jbs@kwangju.co.kr

##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 전시된 '1004'와 신안갯벌

### 세계유산봉사단 사진 전시회 다음 달 국제 청년 섬 워크캠프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 신안군의 상징 '1004'와 신안갯벌 사진이 전시돼 화제다.

신안군은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유네스코 세계유산자원봉사단의 사진 전시회에 신안갯벌이 선보여졌다고 17일 밝혔다.

신안군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자원봉사단의 '2023 국제 청년 섬 워크캠프' 개최지였다.

전시 작품들은 프랑스 파리 폰테 노이 광장에 있는 유네스코 본부에 설치됐다.

신안갯벌을 포함한 한국의 갯벌은 지난 2021년 우리나라 두 번째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됐다. 신안갯벌은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한국의 갯벌 중 85%를 차지하고 있다.

신안군은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세계유산과를 설립해 갯벌 관련 업무를 통합 관리하고 있다. 갯벌의 체계적인 관리와 세계유산 등재 과정에서의 역할을 높이 평가받아 지난 2022년 10월에는 해양수산부 공모 '국립 갯벌세계자연유산보전본부' 유치에도 성공했다.

지난해부터 신안군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자원봉사단 글로벌 사무국 운영을 지원하며 세계자연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 지난 15일까지 20일간 신안갯벌 사진과 신안의 상징 '1004' 등이 전시됐다.

유산 보전에 힘써왔다. 같은 해 13개국 47명의 청년 봉사자가 참가한 '국제 청년 섬 워크캠프'는 도초도와 비금도에서 열렸다.

국제 청년 섬 워크캠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7월15-21일)도 도초도·비금도·하의도에서 진행된다. 행사가 열리는 일주일간 참가자들은 도초도 섬마을인생학교를 중심으로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된다. 지역 고교생들과 어르신들에게 도시

락을 전하고, 해양 쓰레기와 표류물을 청소하는 '비치코밍'도 한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이번 유네스코 세계유산 자원봉사단의 사진 전시를 통해 세계자연유산인 신안의 갯벌이 더 널리 알려지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며 "세계자연유산을 보전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 완도군, 황칠융복합센터·가공 공장 준공

### 30억 들여 신지면 송곡리에 건립

완도군이 완도 황칠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건립된 '완도 황칠융복합센터 및 가공 공장 준공식'을 개최했다.

2020년 농림축산부 주관 향토산업 육성 사업에 선정돼 총 사업비 30억원을 들여 완도군 신

지면 송곡리(신지로 216) 4798㎡ 부지에 건립됐다.

공장에는 황칠 가공, 유통, 출하 시스템을 갖췄으며 센터는 황칠 판매 및 마케팅, 농가 교육 장소 등으로 활용된다.

황칠 숲길, 애견 놀이터 등도 조성될 예정이다. 완도는 황칠 주산지로 상왕봉 등 일대에는 20여

만 그루의 황칠 천연림이 자생하고 있다.

2018년에는 완도 황칠에 차별화를 두고자 황칠 나무와 잎의 원산지 완도임을 증명하는 '지리적 표시 증명 표장'에 등록됐다.

디퓨저와 황칠 잎 차, 농축액, 소금, 딱딱비 등 음식, 체험 상품 등 황칠을 원재료로 한 다양한 제품도 개발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황칠 특화림 조성과 제품 개발, 유통, 마케팅 등 황칠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 하루 1만원씩 모아 둘째 첫돌 365만원 기탁 다산베아채 골프&리조트 장보성 대표 부부 첫째 이어 기부

다산베아채 골프&리조트 장보성·김유림 대표 부부가 '둘째 첫돌'을 맞아 전남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금을 냈다.

전남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장 대표 부부가 둘째 자녀 라온군의 첫돌을 맞아 최근 '희망을 품어 함께 나누는 캠페인'에 365만원을 전했다고 17일 밝혔다.

장 대표 부부의 기부는 첫째 첫돌(2021년)에 이어 둘째에도 이어졌다. 자녀의 첫돌이 될 때까지 365일간 하루 만원씩 모으면서 일 년 내내 모든 아이가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장 대표 부부의 기탁금은 강진지역 아동 양육시설과 형편이 어려운 아동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성금 전달식에는 장 대표 부부와 강진원 강진군수 등이 참석했다.

장 대표 부부는 다산베아채 설립자인 고(故)

김호승 회장의 뜻을 이어받아 지난 2013년부터 12년째 우남문화재단에 인재육성 장학금을 전하고 있다. 지난 2020년 코로나 위기극복 성금 100만원과 군민장학재단 500만원을 내고, 2021년에는 장애인 운동용품 지원을 위한 300만원을 전하기도 했다.

지난해에는 체육 꿈나무 육성을 위해 체육회에 1000만원을 전하고, 2년 연속 희망 나눔 지정기탁금 2000만원을 냈다.

장보성 대표는 "자녀들의 첫돌을 화려하게 축하하는 것보다 남을 돕는 아름다운 마음을 가르쳐주고 싶어 기부를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 2018년 강진만 인근에 문을 연 다산베아채 골프&리조트는 52객실의 리조트와 바다가 내려보이는 14개 홀을 갖췄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 진도군 보건소 3곳 그린리모델링 추진

진도군이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2024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경로당, 보건소, 어린이집, 의료시설 등 취약계층 이용 공공건축물을 선정해 에너지 효율이 낮은 건축물의 단열·설비 성능 등을 개선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공모사업 선정으로 사업비 총 29억원(국비 20억, 군비 9억)을 확보했으며, 선정된 건축물은 진도군보건소, 가지 보건진료소, 동거차 보건진료소 등 3곳이다.

/진도=이종수 기자 js7777@